

비즈 프리즘 | 글로벌 뷰티기업의 국내기업 M&A 왜?

독보적인 중시장 경쟁력

'제 2의 스타일난다'를 찾아라

로레알, 韓스타일난다 인수 화제
K-뷰티 기업 인수 통해 경쟁력 강화
파파레서피 등 글로벌 M&A 기대



2월 대구백화점에 오픈한 스타일난다의 색조 화장품 3CE(쓰리컨셉아이즈·왼쪽사진), 제이준코스메틱과 협업해 '모어 시리즈' 마스크팩을 내놓은 드류 베리모어. 글로벌 뷰티기업과 국내 중견 뷰티업체들의 대형 인수·합병 키워드로 중국이 뜨고 있다.

얼마전 랑콤, 키엘, 비오템, 슈에무라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뷰티기업의 글로벌 공룡 로레알 그룹은 동대문 시장에서 출발한 한국의 1세대 패션 쇼핑몰 스타일난다를 인수해 큰 화제가 됐다. 로레알은 김소희 스타일난다 대표가 보유한 지분 100% 중 70%를 인수했는데, 그 가격이 4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화장품 폰즈부터 도브, 렉스, 바셀린 등의 생활·의학용품, 크노르, 립톤 등의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브랜드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가 AHC 브랜드로 알려진 카보코리아를 국내 화장품업계 인수합병 사상 최고액인 약 3조565억원에 사들였다.

로레알과 유니레버 같은 글로벌 기업은 왜 한국업체 인수에 이토록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을까. 로레알이 인수한 스타일난다와 유니레버가 인수한 카보코리아는 하나의 공통된 강점을 갖고 있다. 바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의 남다른 경쟁력이다.

스타일난다가 보유한 색조 화장품 브랜드 3CE(쓰리컨셉아이즈)는 사드 사태로 인한

양국 관계의 경제 속에서도 중국시장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유지한 대표적인 'K-뷰티' 콘텐츠다. 카보코리아의 AHC도 마찬가지. 아이크림과 마스크팩 등의 주요 상품이 중국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86년 일찌감치 중국 뷰티 시장에 진출했지만 2016년부터 현지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어온 유니레버로서는 카보코리아의 AHC같은 현지에서 통할 효자 브랜드가 절실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뷰티기업의 잇따른 국내 뷰티업체 인수·합병은 중국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려는 전략이다"며 "특히 3CE의 독창적이고 발달한 이미지는 로레알 브랜드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보다 중국서 수익 더 좋은 뷰티기업들 인기

요즘은 '제2의 카보코리아와 스타일난다'로 기대되는 다른 국내 업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보다 중국시장서 수익이 더 나는 코스토리의 파파레서피가 대표적이다. 대표 제품인 '봄비 마스크팩'은 2014년 중국 출시 이후 5억장 이상의 누적 판매고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국판 '프로듀스 101'의 인기 멤버 판정권을 모델로 발탁, 현지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 제이준코스메틱 역시 중국의 '2018 티몰 뷰티 어워드'에서 '인텐티브 사이닝 마스크'가 베스트 마스크팩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할리우드 인기 스타 드류 베리모어와 협업한 '모어 시리즈' 마스크팩 3종을 출시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의 엘앤피코스메틱도 급성장 중인 중국의 색조 시장을 겨냥해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 '메이크힐'을 설립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서 K-뷰티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반대로 글로벌 뷰티기업의 점유율은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업체와의 제휴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혁신 전략을 새로 짜려는 움직임이 강해 글로벌 뷰티기업의 러브콜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6일

코스피지수	2457.49	▲	+2.42
코스닥지수	896.89	▲	+5.02
日 닛케이 지수	2만1835.53	▲	+56.79
中 상하이 종합	3110.65	▼	-48.4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69	▲	+0.014
환율 (원·달러)	1074.00	▲	+4.50
국내금값 (원/그램)	42만6413.31	▲	+252.49

이랜드리테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이랜드리테일이 12일 장애인고용촉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사진)을 받았다. NC백화점, 뉴코 아이윌, 김스클럽 등 전국 지점에서 112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하는 등 정부 지정 의무고용률을 넘었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을 인정받았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방송실과 김스 매장관리, 고객 상담실, 문화센터, 온라인 운영팀 등 직무를 개발했다"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현대약품 '한국의 소리를 품다' 개최



현대약품은 21일 서울 서초동 아미하이티스트 서비스서울에서 '한국의 소리를 품다'(사진)라는 주제로 제106회 아트엔 콘서트를 개최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로, 우리나라 첫 판소리 음악학 박사인 채수정 씨가 무대에 선다. 30여 년간 꾸준히 판소리 한 길을 걸어 오며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판소리 명창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 판소리 춘향가 중 기도하던 월매와 거지꼴로 변장한 어사 이몽룡이 만나는 '어사 상봉 대목'을 부른다.

동화약품,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천

동화약품은 11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동화약품 서울 본사와 용인 연구소, 충주 공장에서 '생명 살리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시행했다. 동화약품은 2017년부터 전 직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약정식을 대한적십자사와 체결했다. 이날 캠페인에 동참하지 못한 직원들은 근무 소재지 인근 헌혈의 집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헌혈증을 향후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관광공사, 공유자전거 기업 모바이크와 파트너십 체결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옥희)는 17일 서울 청계천 서울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공유자전거 기업 모바이크(Mobike, 한국대표 강경훈)와 공식 글로벌 혁신 파트너로서 협업식을 갖는다.

양측은 앞으로 미래형 관광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여행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개

방형 협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관광객의 라스트 마일(현지 도착 후 최종목적지로 이동) 불편 해소, 모바이크 스마트 공유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레저관광·지역관광 활성화, 환경보호 및 미래형 융복합 관광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모바이크 코리아에 따르면 모바이크는 현재

15개국 200개 이상 도시에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일일 탑승자 수가 3000만 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중국의 음식배달업 기업 메이투안 디엔핑으로부터 37억달러(한화 약 3조 9000억 원)에 인수돼 회사를 모았다. 모바이크의 글로벌 혁신 파트너로는 중국의 텐센트, 아이폰 제조사인 대만 폭스콘(자전거 제조 관련 협력), 한니지(태양전지 관련 협력)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처음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현대카드 해외송금 론칭 "비용과 시간 절약하세요"



현대카드가 '디지털 현대카드' 일곱 번째 서비스인 '현대카드 해외송금(사진)'을 선보였다.

모바일 앱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화외전송 서비스다. 송금 수수료는 3000원이

고 송금 시간은 1~3일이다. 1건당 최대 3000달러, 연 최대 2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미국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등 3가지 통화를 21개국에 보낼 수 있다. 5월 31일까지 수수료가 3000원을 전액 면제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대카드 측은 "해외송금 서비스는 외화송금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불법정치자금 혐의 황창규 KT 회장, 17일 경찰 조사

경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KT 황창규(사진) 회장을 소환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4부터 2017년까지 KT가 법외자

금으로 국회의원 90여명에게 총 4억3000여만 원을 불법후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KT 임원들이 상품권을 이른바 '카드깡' 형식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넨 단서를



포착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IT업계는 이번 수사가 황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SKCT·공기업 필기시험 대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코레일 NCS·GSAT 종료...앞으로 남은 취업 시장 공략법은?

지난 14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NCS 필기시험 및 삼성직무적성검사 GSAT 시험이 종료됐다. '삼성 고시'로 통하는 GSAT는 많은 취업생들이 거치는 관문으로 상식 영역이 폐지된 이후 첫 시험이었다. 상식 영역 폐지 및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줄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평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SK그룹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치러지는 SKCT 필기시험이 오는 22일 진행되고,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채용 전형도 차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상반기 채용 시장의 열기는 뜨겁다고 볼 수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필기시험 관문을 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 시기에는 최신 기출문제를 다시 살피고 해당 기업에 특화된 영역별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한 시간 안배 연습도 필수적이다. 인



성검사의 경우 일관성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현재 에듀윌은 대기업, 공기업 취업에 관한 다양한 도서들을 출간하고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최종 목표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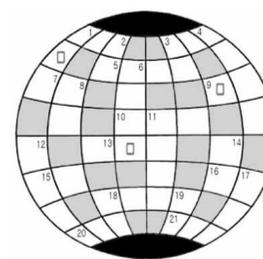
에듀윌이 출간한 SKCT 대비 도서는 SKCT 최신 기출 유형을 반영해 최고난도 수리영역과 직무역량이 강화된 SKCT 채용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과 난이도를 유지한 모의고사 및 실전보다 약간 어렵게 구성된 모의고사 두 가지가 수록돼 수험생의 실력 점검은 물론 실전 감각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가외의 것으로 봄. 나중에 두지 않고 무시함. 03.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05.장기나 바둑에서, 수가 약한 쪽이 먼저 두는 일. 07.남의 일에 참견함. 09.꽃이나 푸성귀 따위의 묶음. 10.참깨를 볶아 소금을 치고 빵아 만든 양념. 13.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狀態)라는 뜻으로, 숨김없이 본디 모습 그대로 드러남. 15.혈통의 관계가 있는 겨레붙이. 16.무릎의 구부러지는 안쪽. 18.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 "오견오명"

20.단군 조선 개국 때의 국도. '오사오' 21.어떤 일이 결정되는 중요한 고비나 발전의 전환점.

■ 세로 열쇠

01.술놀이에서, '도나' '개' 중의 하나. 02.화학 분석에서, 물질을 검출·정량하는 데 쓰는 약품. 03.음용하고 향유한 사람의 손길.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칸칸을 이어 놓으면 여러 분이 잘 아시는 국가 이름이 됩니다.

